제8강 베르그송 철학의 배경

(1교시)

◆『물질과 기억』의 배경 (1)
※학습목표: 『물질과 기억』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그 배경을 알아보자.

▲베르그송 이전의 심신론mind body problem
-중세 형이상학은 일반존재론과 특수존재론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특수존재론은 신학 theolgia, 자연철학(우주론)phyisica(cosmologia), 영혼론psychologia으로 나뉜다. 일반존재론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원리를 다룬 것이고, 특수존재론은 내용을 다룬다. 이 중 오늘날 심신론은 영혼론을 잇고 있다. 과학으로 말하면 심리학이고 철학으로 말하면 심신론이다.
-플라톤, 오르페우스교, 피타고라스교, gnosis파는 이원론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이다. 그리고 17세기에 데케르트로부터 다시 이원론이 나오고 이때부터 근대적인 심신론이다.

*참고자료

Aristoteles『영혼에 관하여(de anima)』유원기역, 궁리출판, 2001

Platon『에우프티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박종현역, 서광사, 2003

www.artnstudy.com

▲『물질과 기억』의 심신론
-『물질과 기억』은 현대의 심신론의 문을 여는 저작이다. 이 책은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 둘의 관계를 추적하고 결국 일원론으로 끌고 간다. 신체와 정신의 구분은 피상적이다. 근본으로 가면 일원론으로 가게 된다.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가는 매개물이 기억memory이다.

▲병리학pathology적 접근
-베르그송 이론의 실증과학적 연구는 실어증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병리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논의가 프랑스철학자들의 큰 관심사다.
-기억의 문제를 '기억이 무엇이냐'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참고자료

Goorges Canguilhem『정상과 병리』이광래역, 한길사, 1996

Michel Foucault『광기의 역사』이규현역, 나남출판, 2003

▲시대적 배경
-이전까지는 인간의 정신이나 신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했다.
-19세기가 되면서 생물학, 생리학, 신경과학, 심리학, 병리학, 정신의학 등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담론을 구체화 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이런 19세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학문들을 섭취하고 비판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심리학을 가로지르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www.artnstudy.com

▲실증론과 형이상학
-서양의 형이상학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로 그리스 존재론이다. 2단계는 그리스 존재론이 희브리 전통과 결합한 중세 존재론이다. 그런데 이 두 단계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는 17세기이다. 17세기에 특히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이 도래한다. 그 이후 경험론적, 실증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형이상학은 부정, 비판당한다. 그리고 20세기가 다시 형이상학이 부활하는 시기다.
-데카르트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실증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로 시작한 17세기는 형이상학이 제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Ren Descartes(1596.3.31~1650.2.11)프랑스의 철학자

▲몸과 마음의 구분
-실체적 구분substantial distinction, 형식적 구분formal distinction, 양태적 구분modal distinction이 있다. 양태적 구분은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형식적 구분은 개념으로만 구분되는 것이다. 실체적 구분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실체적으로 구분되느냐, 형식적으로 구분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원론자들에게 몸과 마음은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일원론자에게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몸과 마음으로 형식적 구분을 한다.

www.artnstudy.com

(2교시)

◆데카르트의 심신론과 유물론, 버클리
※학습목표: 데카르트의 심신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핌으로써 베르그송의 생각에 다가갈 준비를 한다.

▲res extensa와 res cogitans
-데카르트에 따르면, 몸은 res extensa다 모든 물질적 실체는 공간적 외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은 res cogitans다. 사유하는 존재다.
-여기서 cogio는 정신활동을 가리킨다.

▲데카르트의 세계
-데카르트의 세계는 우주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연장된 것(res extensa)인데, 오직 우리의 마음만 다르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몸은 물체와 다를 것이 없다. 좀 더 복잡할 뿐이다.
-데카르트의 사유는 수학적 사유에 경도한다. 그래서 cogito에서 시간을 제거한다. 서양의 모든 본질주의는 시간을 뺀다. 시간 속에서 변해가면 본질essence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은 신이 계속 넣어준 것이다. 신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면 그 시체에 더 이상 activity가 없다.

▲데카르트와 유물론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다. 신과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였는데, 근대물리학의 발달로 신학적 세계가 무너졌다. 이에 데카르트는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이러한 문화적 위기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겠다.
-18세기 유물론은 데카르트의 반대다. 유물론에서는 마음도 res extensa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뇌 신경계 전체 움직임의 부대현상epiphenomenon이다. 데카르트가 예외로 삼고 싶던 영역까지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종교가 예전의 후광을 모두 잃는다.

▲스피노자의 몸과 마음
-스피노자는 몸과 마음을 형식적으로 구분한다. 몸과 마음은 실체가 아니라 근본실체의 두 속성들이다.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표현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Baruch de Spinoza(1632.11.24~1677.2.21)네델란드의 철학자

George Berkeley(1685.3.12~1753.1.14)영국의 철학자

▲데카르트와 버클리
-베르그송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비판한다. 데카르트가 화원주의적이고, 양화적이고, 본질적인 설정을 하는 데 비하여, 베르그송은 질적인 운동성, 비본질주의, 생성, 시간 등을 강조

www.artnstudy.com

한다.

-베르그송은 제1성질과 제2성질에 대한 버클리의 비판을 받아들인다. 전통철학자들은 제1성질은 진짜고, 제2성질은 주관과의 관계에서 성립한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반면 버클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진짜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www.artnstudy.com